

모시잎떡 명품화...영광군 전시·체험전 연다

1~2일 해수온천랜드서

60여 가지 떡 전시·빚기 체험

백수노을축제도 함께 열려

영광군이 10월 첫 황금연휴를 맞아 모시잎떡의 명품화를 위한 떡 전시회와 체험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또 같은기간 ‘노을속의로의 추억 여행’을 주제로 제7회 영광백수노을축제도 열릴 예정이어서 가족·연인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모시잎떡의 명품화를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백수해안도로에 있는 해수온천랜드 일원에서 모시잎을 활용한 떡 전시회 및 체험행사를 연다.

‘가을하늘 떨어지는 노을에 소망을 담아 모시잎 떡을 빚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



사회에서는 어린이와 젊은층의 입맛을 겨냥한 토파아와 설기떡 등 60여 가지 다양한 떡 전시와 모시단팥죽 만들기, 모시잎송편 만들기, 동부공 골라주, 다과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영광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특유의 전통음식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영광 대표 간식거리이자 식사대용으로도 인기 만점인 영광산 모시잎과 동부를 주제로

로 한 ‘영광 모시잎 활용 떡’ 전시회도 갖는다.

영광군 예로부터 전통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인 모시잎송편을 영광굴비와 함께 영광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번 떡 전시회와 체험행사도 모시잎 떡의 전국 명품화를 위한 사업 중 하나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서해안

의 대표 관광지인 영광 백수 해안도로에서 붉게 물들어 떨어지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떡 전시회를 함께 한다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행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시잎은 항산화 성분이 쏙의 6배, 식이 섬유는 일반 엽채류의 6배, 칼슘은 우유의 37배에 이르는 건강식품으로, 노화 지연과 변비 예방, 이뇨 촉진, 당뇨 예방, 면역력 증진,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영광군은 오는 10월 1~2일 제7회 영광백수노을축제를 개최한다. 백수해수온천랜드 특설무대에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노을가요제와 노을사진 전시회, 불꽃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 또 구수산 등반대회, 막걸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축제후원은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가 한다.

/영광=박형진기자 phj@

동함평산단 年 400만속 김 생산공장 준공

최신설비·냉동창고 등 갖춰...70% 중·일 등에 수출

함평군은 “지난해 10월 투자협약을 체결한 ㈜해본이 동함평산단에 최신설비를 갖춘 김 가공공장을 완공하고 23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준공식에는 (주)해본 김성관 회장과 김문수 대표이사, 한국 마른김생산자연합회 최봉학 회장, 전남도 우기종 정무부지사, 안병호 함평군수, 이운행 함평군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임윤수, 정정희 도의원,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축 공장은 8790㎡ 부지에 총사업비 48억원을 들여 마른 김과 김밥용 구이 김 등을 연간 400만속(속당 100장) 생산할 수

있는 최신설비를 갖춘 김 가공공장과 140만속의 김을 저장할 수 있는 냉동창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해본측은 또 130억원을 추가 투자해 이미 매입한 1만1689㎡ 부지에 물김 공장 냉동창고 등을 추가로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김 중 70%는 일본과 중국, 미국, 태국 등지로 수출될 예정으로, 전남의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물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함평주민 10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돼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 기대된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준공식에서 “(주)해본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해본은 지난 2014년 함평에 설립한 향토기업으로, 농수산물 도매업 등으로 연매출 2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무안군 농산어촌개발 7건 국비 91억원 확보

무안군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농산어촌 개발사업비 91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무안군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에 환경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등 총 7건 9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환경면 농촌중심

지활성화사업 60억원 ▲일로읍 용호동 창조적 마을 만들기 5억원 ▲일로읍 무룡동 창조적 마을 만들기 5억원 ▲몽탄면 기룡동 창조적 마을 만들기 5억원 ▲운남면 남촌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5억원 ▲꿈틀이 마을종합지원센터 10억원 ▲무안군 역량강화사업 1억5000만원 등이며, 각 사업별로 1~4년간 추진된다.

이번 정부 공모에서 무안군은 지난해 지

방채를 전액 상환해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점과 농촌의 변화를 주도할 여건 조성을 위한 집중 투자, 2014년부터 무안군민의 주민주도형 상향식 마을 만들기인 ‘수련마을’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특히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행복마을컨테스트 마을가꾸기 분야에서 가장 높은 금상을 수상한 데 이어

농림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내년부터 1~4년간 추진

올해 확정 사업비까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분야에서만 최근 4년간 총 24건 48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10년 계획에 따라 꾸준히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확대 지원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 제1의 살기 좋은 행복 무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임동현기자 idh@

영광군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집중 출하 예방·산물벼 매입체계 구축 나서

영광군이 쌀 수급안정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쌀 생산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수확기 집중 출하 예방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통합RPC 매입량에 대해서는 전량 산물벼 매입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양곡물류센터를 설치하는 등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영광군의 산물벼 건조 처리 능력은 2만톤으로 연간 벼 생산량 7만톤 대비 2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오는 2019년까지 74억원을 투입해 벼 건조 저장능력을 3

만3000톤까지 확충해 벼 생산물량의 50%까지 산물벼로 매입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또 수도권 쌀시장에서 영광군 고품질 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억원 규모의 양곡물류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김용태 영광군 농정과장은 “쌀값 하락에 따른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는 벼 전면적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벼 육묘용 농자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쌀수급 안정을 위해 조생종벼, 찰벼 재배면적도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무안군 전직원 대상 ‘김영란법’ 교육

무안군은 “지난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전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교육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대상 등 주요 내용과 함께 그동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례를 통해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일어

날 가능성이 큰 내용에 대해 사례소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문방진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영광 학생 4-H회원 전남도 과제발표 대회 최우수상

영광지역 학생 4-H회원들이 전남도 과제발표 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9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전남도 학생 4-H 과제발표대회에서 영광 성지고등학교 19명으로 구성된 풍물·밴드합동 공연팀이 최우수상을, 영광 공업고등학교 5명으로 구성된 댄스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4-H 활동은 지·덕·노·체의 정신으로

명석한 머리와 충성스런 마음, 부지런한 손, 건강한 몸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으로,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4-H이념을 생활화해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토록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교육 운동이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학교 4-H회 회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지리산 온천지구 내, 호텔급 모텔, 사정상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정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대출
-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협의,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